

# 뜨는 별들의 학교폭력...한류에 찬물

지수 드라마 하자·조병규 의혹 등 한류의 경제적 가치와 묶어 소개 "중국 한한령·일본 혐한 이은 악재"

## 'River Where The Moon Rises' Halts Filming Amid Bullying Allegations

Joan MacDonald Contributor @ Hollywood & Entertainment  
I'm a journalist fascinated by Korean drama and film.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인터넷판을 통해 배우 지수(사진) 등 학폭 논란에 연루된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를 상세히 보도해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일부 연예인에 대해 제기된 '학폭' 의혹과 논란이 한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한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적극 반영해온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연기자 지수와 박혜수 등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최근 지수가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조안 맥도널드 기사는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학폭 의혹에 촬영 중단'이라는 제목 아래 지수와 함께 박혜수, 조병규, 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 등 연예인들의 의혹과 해명 등 논란을 다뤘다.

포브스는 지수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달이 뜨는 강'의 방송사 KBS가 "모두 20회 분량으로 18편분의 드라마 촬영을 마쳤지만

주인공인 지수를 하차시켰다"면서 연기자 교체 과정을 설명했다.

지수의 연기 경력까지 소개한 기사는 또 KBS 2TV 드라마 '디어 엠'의 박혜수와 케이팝 걸그룹 에이프릴의 멤버 이나은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전했다. 역시 '경이로운 소문'으로 스타덤에 오른 조병규의 의혹과 대응 과정도 담았다.

포브스는 그동안 한류의 열기와 관심을 보도해온 세계적인 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상 후보 선정 등에 대해서도 비영어권 음악에 인색한 보수적 취향 측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또 경제전문지답게 한류 특히 케이팝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왔다.

따라서 이번 포브스의 보도를 통해 현재 한국 연예계의 학폭 논란이 전 세계로 전파돼 한류 열기에 자칫 악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중국 한한령과 일본의 혐한 분위기, 감염병 확산 등 악재를 딛고 그동안 한류, 특히 케이(K)드라마가 세계적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 갖은 의혹과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13년차 내공 김소현 '달이 뜨는 강' 든든한 평강공주

15일 방송하는 9회부터 다시 촬영 '지수 대타' 나인우, 6일 현장 투입

지수의 '학폭' 논란 여파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방송 도중 주연 교체라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방송가 인파의 시선이 또 다른 주연 김소현에게 향하고 있다. 파트너 교체와 급박한 재촬영 일정에도 드라마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다.



김소현 나인우

콘텐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시청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작진은 현장 분위기 쇄신에 주력하고 있다. 김소현이 선두에 섰다. 의연한 태도로 새 파트너 나인우와 호흡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 안팎에서는 올해로 데뷔 13년차인 김소현의 '내공'이 드라마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큰 동요 없이 촬영에 임해 놀랐다"고 귀띔했다.

시청자 이목도 그를 향한다. 고구려

공주 평강의 설화를 재해석한 이야기를 전면에서 이끌며 시청률을 10%대(닐슨 코리아)까지 끌어올린 그가 이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소현이 주연해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도 화제가 올라섰다. 사극과 청춘 로맨스의 주연작을 나란히 공개하게 된 그는 8일 오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를 소개하며 현재 심정과 각오도 짧게 밝힐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소현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은 15일 방송하는 9회분부터 다시 촬영 중이다. 이미 찍어놓은 18회분의 대부분

을 폐기하고 8일과 9일 방영분에서도 지수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내보낼 예정이다. KBS와 제작사 빅토리

## 주말 안방극 '막장 빅매치' 희비

SBS '펜트하우스2' 학폭으로 시의성까지 켜져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결혼관 시대착오

최근 주말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막장 빅매치'다. 방송가의 '막장 대모'로 꼽히는 김순옥 작가와 임성진 작가가 각각 SBS '펜트하우스2'와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으로 격돌하고 있다. 각각 시즌3과 시즌2를 향해 반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청자 반응이 엇갈려 눈길을 끈다.

'펜트하우스'는 시즌2부터 학교폭력(학폭)을 다뤄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재벌가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학폭이 어른들의 얽히고설킨 복수 이야기에 불을 붙여 6일 시청률이 26.9%(이하 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19일 1회분의 19.1%보다 무려 8%포인트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학폭의 민낯을 발 빠르게 담아 시의성을 켜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는 없는 게 되는 것이냐"고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묻는 유진의 대사 등 관련 장면도 온라인상에서 끊임 없이 공유되고 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30~50대 부부들의 엇갈린 사랑을 다루면서 시청자 시선을 붙잡는다. 자녀 교육과 이혼 등에 대한 부부의 대화 현실적이라는 반응에 힘입어 꾸준히 화제물이 중이다. 성훈·이태곤·전노민 등 각 인물들의 불륜 상대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 이를 추리하는 매력까지 더했다.

다만 드라마에 투영된 결혼관이 다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미 등이 "남자 한눈 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라며 여성의 외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임 작가의 과거 작품에 비해 딱 떨어지는 '한 방'이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시청률도 한 달 가까이 8%대에 정체돼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 영면



김태욱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가 영원히 눈을 감았다. 4일 61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사망한 김 전 아나운서의 발인식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장지는 서울시립송화원이다. 2014년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김태욱 전 아나운서는 1987년 CBS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KBS를 거쳐 1991년 SBS에 입사했다. 2019년까지 아나운서팀 부국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사망 전날까지도 SBS 러브FM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을 진행했다.

### 美 배리어티, 블핑 등 영향력 있는 여성 선정



블랙핑크

김은희 작가 먼트 업계에 영향력을 미친 여성에 선정됐다. 배리어티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선정된 54인의 리스트에 이들을 포함한 이유로 "인기에 경계가 없는 이들(블랙핑크)", "한국 드라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김은희)"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영국 팝스타 듀아 리파,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홍상수 감독 '인트로덕션',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홍상수 영화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홍 감독은 5일(한국시간) 폐막한 제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25번째 장편 '인트로덕션'으로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 영화는 청년 영화가 아버지와 연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홍 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주연 배우 김민희에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안겼고, 작년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이날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 소식에 놀랐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웹툰 만난 OST...새로운 음원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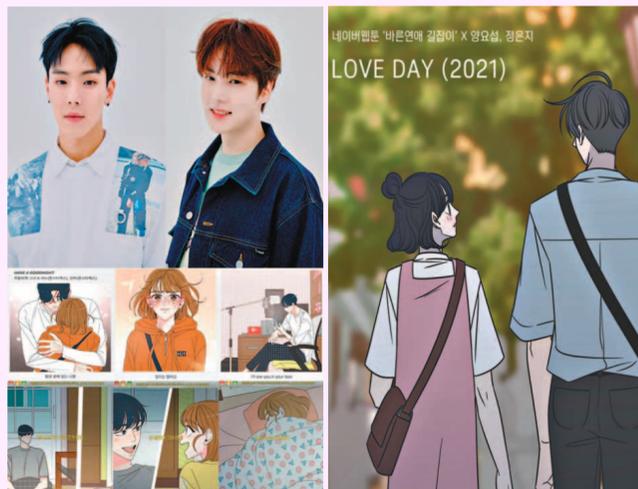
'바른연애 길잡이' 각종 차트 상위권 린·허각·10cm 등 20위 안에 올라 '취향저격 그녀' 8개월째 장기 흥행

3위를 차지했다. 앞서 린, 윤하, 허각, 10cm, 적재 등이 각각 발표한 '그때 새겨두어요', '서른 밤 짝', '고백',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나랑 같이 걸을래' 등도 20위 안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웹툰 '취향저격 그녀'의 OST도 지난해 7월부터 각종 음원차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B1A4의 산들이 부른 '취기를 빌려', 슈퍼주니어 규현의 '내 마음이 울잖았던 순간' 등은 공개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음원 차트 10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 중이다.

웹툰 OST는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모은다. 유튜브 등을 통해 각 웹툰 장면에 맞는 OST가 무직비디오 형태로 선보이고, 이를 보거나 해당 음원을 듣는 독자가 웹툰 이야기의 입체성을 얻는 방식이다. 이에 각 제작진은 웹툰의 이야기와 캐릭터 등에 어울리는 음악을 집중 제작함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셈이다.

이처럼 웹툰 OST가 강세를 보이는



최근 몬스타엑스 서누·민혁(왼쪽 위) 등 '음원 강자'들과 인기 웹툰의 OST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 | 스타쉽엔터테인먼트·투스튜디오

것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잇따라 제작되고, 웹툰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관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요계 손꼽히는 '음원 강자'들까지 합류해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각 웹툰의 장르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수들이다. 크러쉬, 그룹 몬스타엑스 서누·민혁, 스타딩 에그, 엑소 찬열, 김준수 등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들이 꼽힌다.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